

2005년도 우리나라 공적개발원조(ODA) 통계보고

(2006. 10. 4)

경제기획실

1. 공적개발원조(ODA) 규모

□ 2005년 우리나라 ODA 규모는 전년대비 78% 증가한 7억 5,232만 달러로서 국민총소득(GNI)의 0.1%를 기록

- 다자간 원조의 대폭 확대와 양자간 원조의 꾸준한 증가세가 실적 증가의 주 요인

우리나라 ODA 공여 규모(순지출 기준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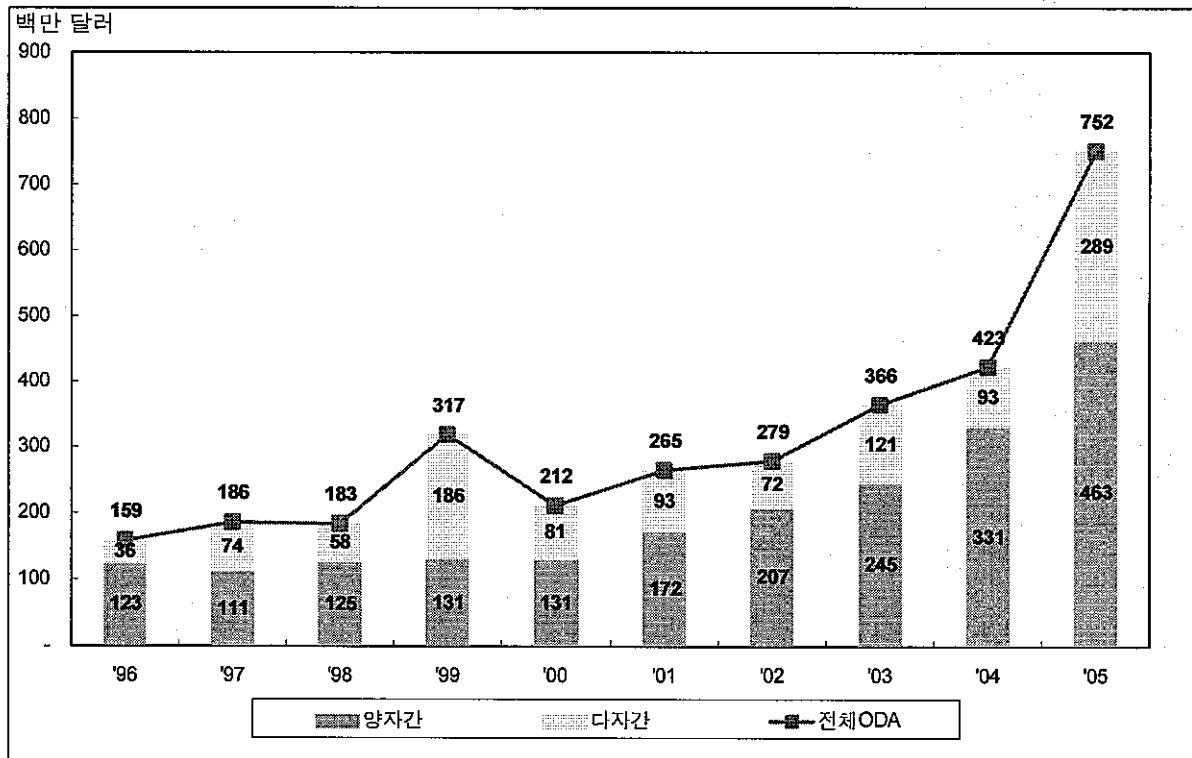
(백만 달러)

구 분	2004년	2005년	증감율(%)	비중(%)
ODA (a+b)	423.3	752.3	77.7	100.0
양자간 ODA (a)	330.8	463.3	40.1	61.6
무상원조	212.1	318.0	49.9	42.3
그중: KOICA	174.6	201.9	15.6	26.8
유상원조(EDCF)	118.7	145.3	22.4	19.3
다자간 ODA (b)	92.6	289.0	212.1	38.4
그중: 한국은행	62.5	239.9	283.8	31.9
ODA/GNI(%)	0.06	0.10	-	-

□ 양자간 : 다자간 지원비중은 62% : 38%로 전년에 비해 다자간 원조 비중이 14% 포인트 상승

- 양자간 ODA는 4억 6,330만 달러로 전년대비 40% 증가
 - 무상원조는 이라크에 대한 지원 증가로 3억 1,8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양자간 ODA의 68.6%를 차지
 - * 이라크 지원(백만 달러) : 0.02('02년) → 40.6('03년) → 72.2('04년) → 149.5('05년)
 - 유상원조는 경제·사회 인프라를 중심으로 1억 4,530만 달러를 지원하여 양자간 ODA의 31.4%를 차지

우리나라 ODA의 연도별 추이(순지출 기준)



○ 다자간 ODA는 2억 8,901만 달러로 전년대비 212% 증가

- 우리나라의 IDB 가입에 따른 출연·출자금(8,120만 달러) 납입과 IDA 출자금 증가(4,367만 달러→1억 1,973만 달러)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임

* '06년에는 IDA와 지역개발은행(MDB)에 대한 출연·출자금이 대폭 축소됨에 따라 다자간 ODA는 예년 수준인 1억 달러 수준으로 복귀할 것으로 예상됨

□ 2005년도 우리나라의 ODA/GNI 비율은 0.10%, 1인당 ODA는 15달러를 기록

- 2005년도 GNI대비 ODA 비율과 1인당 ODA는 전년에 비해 크게 증가하여 사상 최고치를 기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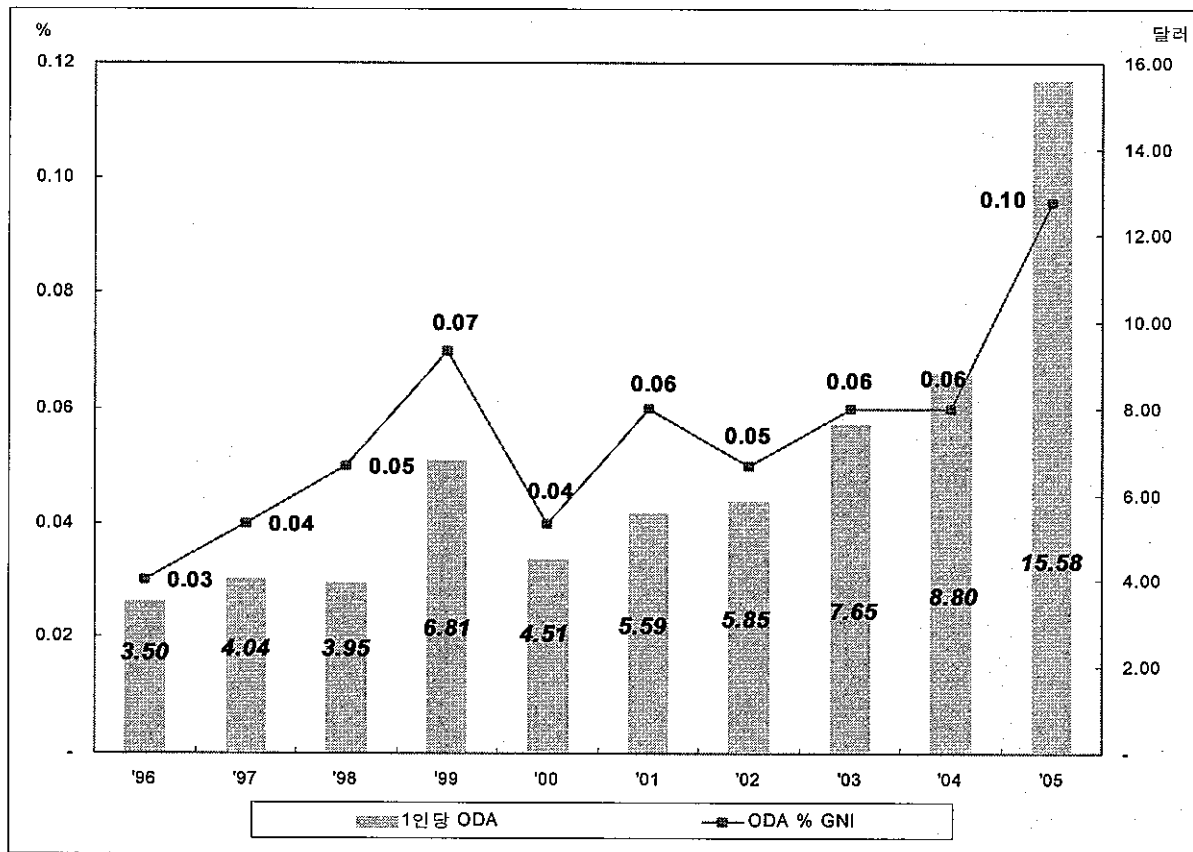
- ODA/GNI 비율 : 0.06% → 0.10% (0.04% 포인트 증가)

- 1인당 ODA : 8.8달러 → 15.6달러(약 7달러 증가)

- 그러나 OECD DAC(개발원조위원회) 회원국의 평균에는 크게 못 미쳐 ODA/GNI 비율은 1/3 수준, 1인당 ODA는 1/8~1/9 수준에 그침

* DAC 회원국 평균(잠정치) : 0.33%(ODA/GNI비율), 130.2달러(1인당 ODA)

우리나라의 ODA/GNI 비율 및 1인당 ODA 추이(순지출 기준)



2. 원조형태별 ODA 규모(순지출 기준)

□ 양자간 원조는 KOICA와 다수의 정부부처가 실시하는 무상원조와 EDCF에 의한 대개도국 차관인 유상원조로 대별

○ 무상원조는 KOICA(2억 186만 달러)와 국방부(8,099만 달러)가 전체의 88.9%를 차지

- KOICA*는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원조(물자지원 등) 9,634백만 달러, 전문가 파견 등 기술협력 5,963만 달러, 비상재난구호 2,497만 달러를 지원

* KOICA의 무상원조는 전년대비 15.6% 증가하였지만, 전체 무상원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게 감소(82.3%→63.5%)

- 국방부*는 對이라크 평화재건 사단의 재건 활동이 7,547만 달러, 對아프가니스탄의 의료 및 재건 활동이 552만 달러를 차지

* 국방부는 인도적 대민 지원활동과 사회경제개발 지원활동 증가로 전년대비 412.4% 증가

- 유상원조는 대외경제협력기금(EDCF)을 통한 대개도국 차관 지원액을 말함
- EDCF는 '05년 대개도국 차관으로 전년대비 22% 증가한 1억 4,530만 달러를 순집행함

□ 다자간 원조는 UN기구, 세계은행, 지역개발은행 등에 대한 출연·출자금 및 양허성 차관으로 구성

- 2005년에는 세계은행(IDA) 출자금과 미주개발은행(IDB) 출연·출자금이 다자간 원조의 약 70%를 차지
- '05년 다자간 원조는 세계은행(IBRD 및 IDA) 출자금 1억 2,012만 달러(IDA 1억 1,973만 달러), IDB 등 지역개발금융은행 출연·출자금 1억 2,592만 달러, UN기구 분담금 3,827만 달러 등으로 구성

원조형태별 ODA 규모(순지출 기준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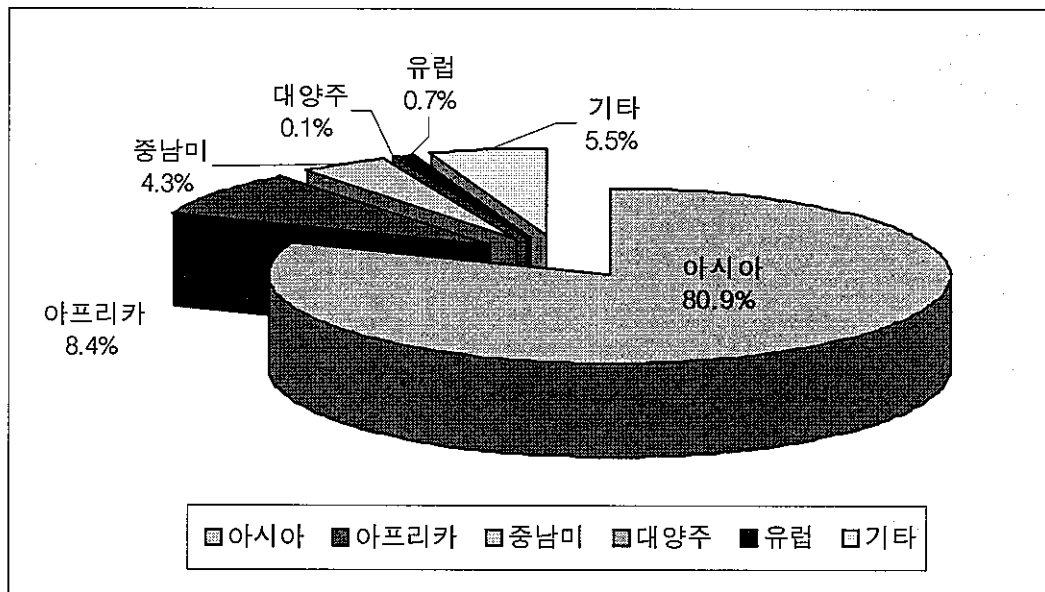
(백만 달러)

양자간 원조	무 상 원 조							유 상 원 조
	프로젝트원조	프로그램원조	기술협력	비상재난구호	NGO 지원	행정비용	기타	
463.3	148.4	36.6	80.2	26.7	4.5	19.4	2.2	145.3
다자간 원조	출 연 · 출 자							양허성 차관
	UN 기구	세계은행		지역개발은행		기타	-	
		IDA	기타	IDB	기타			
289.0	38.3	119.7	0.4	81.2	44.7	11.3	-	△6.6

3. 지역·국가별 지원규모(순지출 기준)

- 양자간 ODA는 81%가 아시아에 집중되었으며, 아프리카(8.4%), 중남미(4.3%) 등이 그 뒤를 이음
- 아시아 지역은 중동(양자간 ODA의 38.4%), 남부 및 중앙아시아(21.4%), 동아시아(21.1%)등으로 구성
- 무상원조와 유상원조 각각의 지리적 배분도 양자간 ODA 전체의 지리적 배분과 유사하여 아시아 지역에 각각 80.1, 82.7%를 지원

양자간 ODA의 지역별 지원비중(순지출 기준)



양자간 ODA의 지역별 지원규모(순지출 기준)

(백만 달러)

구분	아시아	아프리카	중남미	유럽	대양주	기타*	합계
무상원조	254.8	17.8	14.7	3.9	1.1	25.6	318.0
유상원조	120.2	21.3	5.1	-0.7	-0.5	-	145.3
합계	374.9	39.1	19.8	3.3	0.5	25.6	463.3

* 기타는 특정지역이 아니라 넓은 지역에 배정되어 배분이 어려운 경우임

□ 국가별로는 이라크에 전체 양자간 ODA의 32%(양자간 무상원조의 47%)가 집중되었고, 스리랑카, 방글라데시 등이 그 다음 순위를 차지

- 이라크는 2003년 3월 전쟁발발에 따른 무상원조 증가에 힘입어 2003년 이후 우리나라 제일의 ODA 지원 대상국으로 자리잡음
- '05년 이라크에 대한 무상원조(1억 4,954만 달러)는 국방부(7,547만 달러)와 KOICA(7,383만 달러)가 대부분을 지원
- 상위 10개국에 대한 양자간 ODA 비중은 72.2%로 작년에 비해 다소 감소함(74.6%→72.2%)

양자간 ODA의 국가별 지원규모(순지출 기준)

(백만 달러)

순위	국 가	무상원조	유상원조	합계	
				금액	비중(%)
1	이라크	149.5	-	149.5	32.3
2	스리랑카	13.2	20.0	33.2	7.2
3	방글라데시	2.1	29.8	31.9	6.9
4	예멘	0.3	23.8	24.1	5.2
5	중국	5.9	13.8	19.7	4.3
6	인도네시아	11.3	7.0	18.3	3.9
7	캄보디아	6.6	11.2	17.8	3.8
8	베트남	12.3	3.0	15.3	3.3
9	가나	0.3	13.4	13.7	3.0
10	케냐	0.5	10.4	10.9	2.4
상위 10개국 소계		202.1	132.5	334.5	72.2
기타 128개국 소계		115.9	12.8	128.8	27.8
총 합계		318.0	145.3	463.3	100.0

□ 소득그룹별로는 하위중소득국(LMIC)에 양자간 ODA의 57%가 지원되었고 최빈국(LDC)에는 25%가 지원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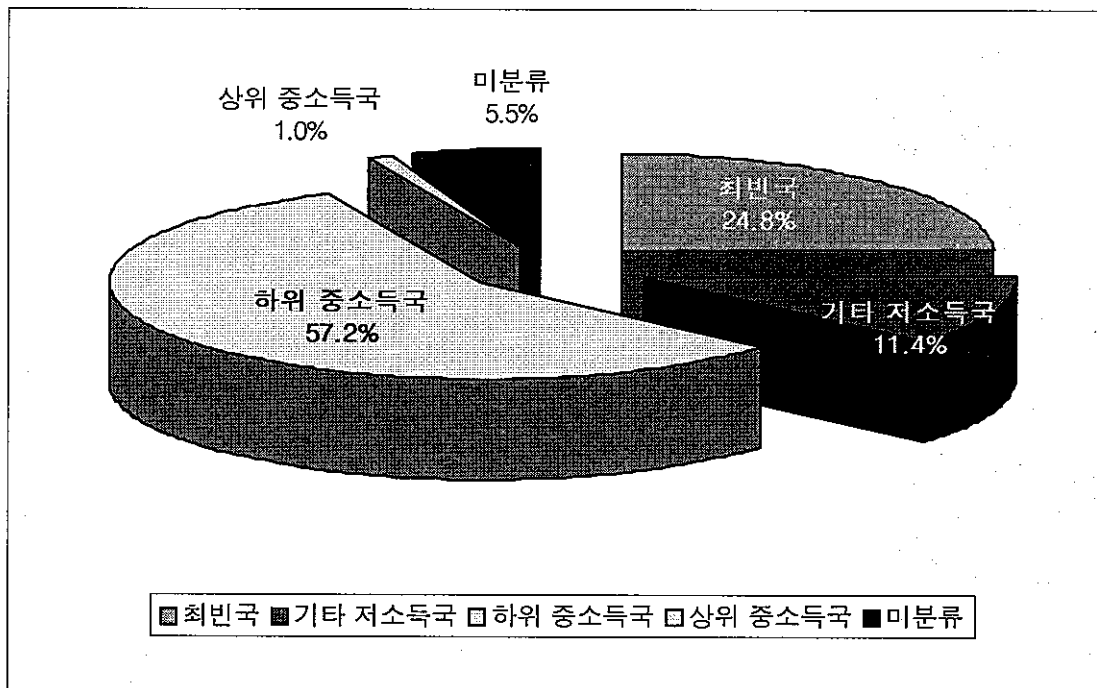
- 전년과 비교하여 최빈국 비중은 비슷하나, 하위중소득국 비중은 9.4% 포인트 상승하고 기타 저소득국비중은 8% 포인트 감소함
- 무상원조는 이라크 지원 확대로 하위중소득국 비중(68%)이 높은 반면, 유상원조는 방글라데시, 예멘, 라오스, 미얀마 등에 대한 집행 증가로 최빈국 지원비중(52%)이 높음

양자간 ODA의 소득그룹별 지원규모(순지출 기준)

(백만 달러)

구 분	최빈국 (UN지정)	기타 저소득국 (1인당 GNI <825달러)	하위 중소득국 (≤3,255달러)	상위 중소득국 (≤10,065달러)	미분류	합계
무상원조	39.8	29.6	217.4	5.6	25.6	318.0
유상원조	75.3	23.3	47.4	-0.8	-	145.3
합 계	115.1	52.9	264.8	4.8	25.6	463.3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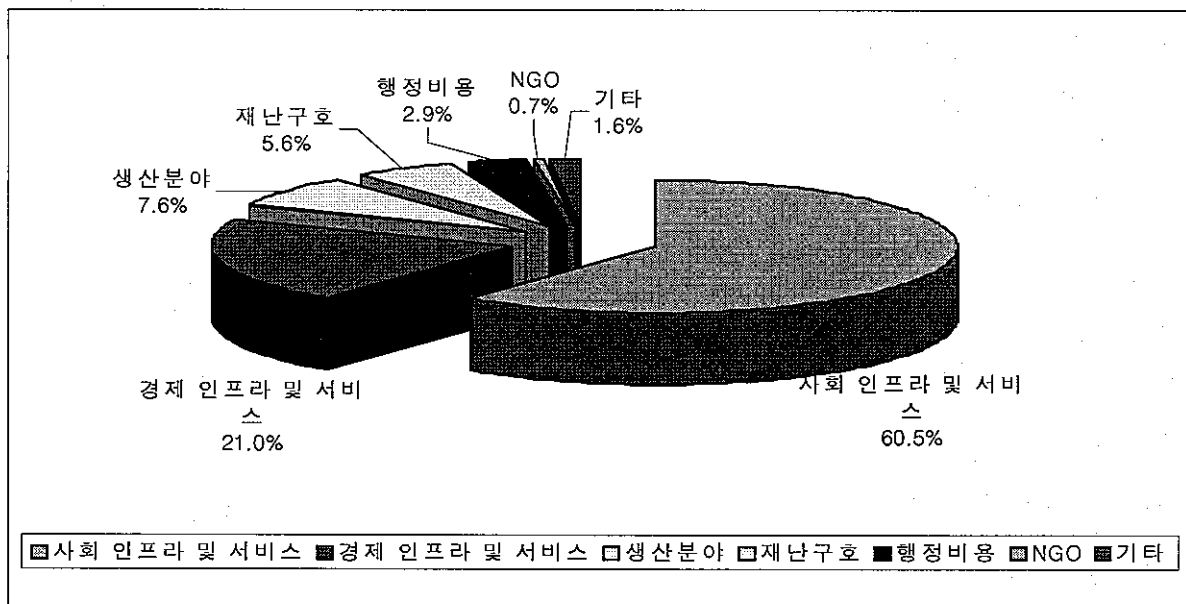
양자간 ODA의 소득그룹별 지원비중(순지출 기준)



4. 분야별 지원규모(승인 기준)

- 양자간 ODA는 사회 인프라 및 서비스에 61%(3억 9,800만 달러), 경제 인프라 및 서비스에는 21%(1억 3,812만 달러)를 지원
 - 사회 인프라 및 서비스는 식수공급 및 위생 부문(1억 156만 달러)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, 보건(8,964만 달러), 공공행정(7,230만 달러), 교육(5,017만 달러)이 그 뒤를 이음
 - 경제 인프라 및 서비스는 교통 부문(8,292만 달러)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, 통신(5,164만 달러), 에너지(325만 달러)가 그 다음 순
 - 생산 분야는 농·임·수산업 등을 중심으로 5,025만 달러가 지원되었으며, 비상 재난구호에는 3,687만 달러, 행정비용으로는 1,938만 달러가 집행됨

양자간 ODA의 분야별 지원비중(승인 기준)



양자간 ODA의 분야별 지원규모(승인 기준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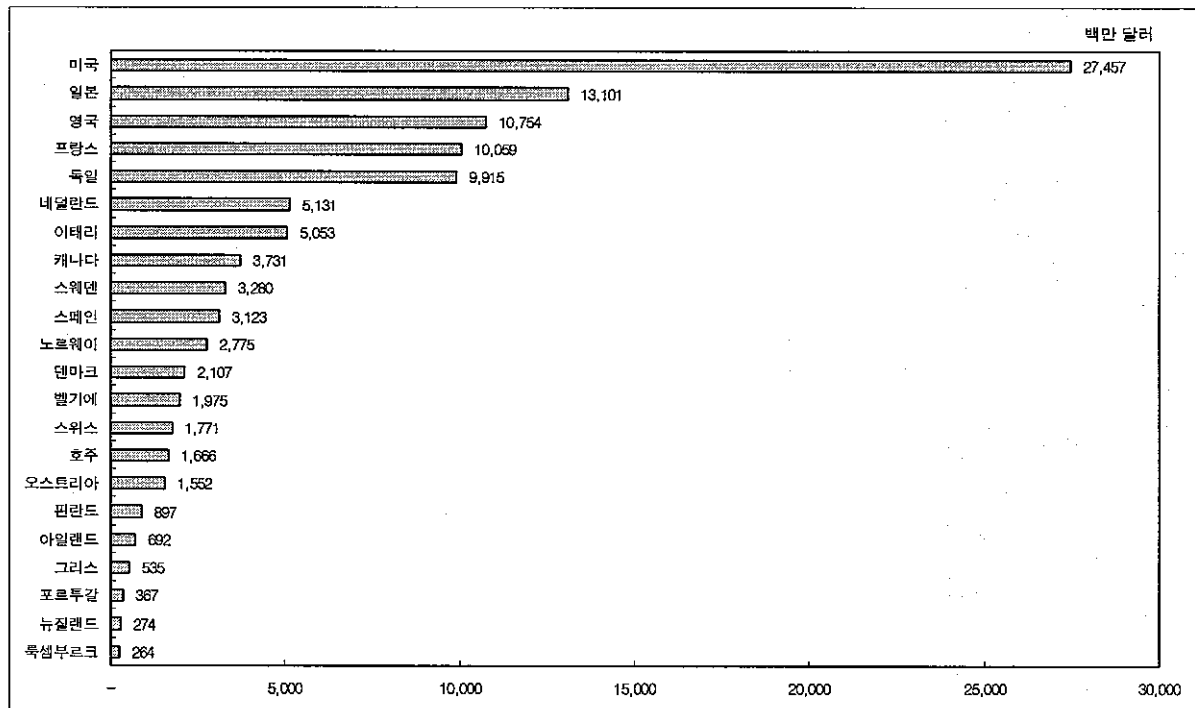
(백만 달러)

구 분	프로젝트 원조	프로그램 원조	기술협력	기타	합 계
사회 인프라 및 서비스	319.42	34.82	43.75	-	398.00
교육	26.57	2.03	21.57	-	50.17
보건	67.50	13.37	8.77	-	89.64
인구	-	-	0.06	-	0.06
식수공급 및 위생	101.11	-	0.45	-	101.56
공공행정 및 시민단체	44.64	17.75	9.91	-	72.30
기타	79.60	1.68	2.98	-	84.25
경제 인프라 및 서비스	113.41	1.51	23.20	-	138.12
교통	78.90	0.69	3.33	-	82.92
통신	34.18	0.04	17.43	-	51.64
에너지	0.33	0.78	2.14	-	3.25
금융 서비스	-	-	0.16	-	0.16
기타	-	-	0.15	-	0.15
생산 분야	37.63	0.14	12.46	-	50.25
농·임·수산업	35.30	0.14	5.85	-	41.29
산업·광업·건설	2.33	-	5.89	-	8.22
무역 및 관광	-	0.02	0.72	-	0.74
다분야	0.43	0.07	3.38	-	3.88
재난구호	-	-	-	36.87	36.87
행정비용	-	-	-	19.38	19.38
기타	-	-	0.28	11.02	11.30
합 계	470.90	36.56	83.06	67.27	657.79

※ OECD DAC 회원국의 2005년 ODA 실적(잠정치)

□ DAC 회원국의 2005년 ODA 공여규모(잠정치)는 1,065억 달러(순지출 기준)로 ODA/GNI 비율은 0.33%를 기록

DAC 회원국의 2005년 ODA 지원규모(잠정)



DAC 회원국의 2005년 ODA/GNI 비율(잠정)

